

‘포용’의 시대정신과 한국 사람 만들기

함재봉 (한국학술연구원장)

한국 근현대사의 시대정신은 ‘포용(inclusivity)’이다. 조선왕조의 쇠락과 멸망, 식민통치, 해방, 분단, 건국, 6.25, 4.19, 5.16, 10.26, 12.12, 5.18, 6.10, 제6 공화국에 이르는 역사는 치욕과 억압, 투쟁과 상잔, 폭력과 저항으로 점철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역사의 고비마다 보다 포용적인 체제를 건설하는데 성공한다. 고통스러운 역사가 동시에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번영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다. 한국의 ‘민족정신(volksgeist)’이 저항과 투쟁이었다면 한국 근현대사의 ‘시대정신(zeitgeist)’은 포용이었다.

조선을 거부한 3.1운동

조선은 전체 인구의 3-5%에 불과한 문반 사대부들이 나머지 95-97% 인구를 분리 통치하는 체제였다. 여성, 무반, 서얼, 중인, 서북인, 향리, 평민, 천민을 철저히 차별하는 신분제도를 통하여 모든 권력과 부는 극소수의 문반 사대부들이 누렸다. 19세기 조선은 ‘실패한 국가’로 전락한다. 참정은 커녕 경제도, 안보도, 교육도, 의료도 백성을 위해서 베푸는 것 없던 정부는 수탈기관으로 전락한다. 1910년 조선 멸망 당시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긴 것은 슬퍼하면서도 조선왕조와 유교문명의 몰락은 슬퍼하지 않은 이유다.

3.1운동은 국권회복 운동이었다. 조선이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지 9년만에 나라의 독립을 되찾고자 일어난 의거다. 그러나 조선왕조 복벽운동은 아니었다. 당시 조선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 등은 모두 생존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다시 왕위에 앉히고 조선을 복원하겠다고 한 사람은 없었다.

나라는 되찾아야 했지만 조선을 복원시키는 것은 원치 않았던 조선 사람들은 대안을 찾아 나선다. 국권을 회복하는 날이 오면 과연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지, 유교가 아니면 새 나라의 종교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중화질서가 아니면 어떤 국제질서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새 나라는 조선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지 모색하기 시작한다.

나라를 빼앗기고 전통을 거부한 조선사람들은 간도로, 연해주로, 상해로, 중경으로, 연안으로, 동경으로, 모스크바로, 하바로브스크로, 하와이로, 상항으로, 나성으로 새 나라와 새 정체성을 찾아 나선다. 빼앗긴 조선반도를 뒤로 하고 전세계로 흩어져 새로운 이념과 사상, 정치체제를 공부하고 새로운 종교로 개종하면서 각종 유형의 단체를 조직하고 공동체를 건설하면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새 나라에 걸 맞는 새로운 정치체제와 인간형

을 찾기 위한 긴 여정에 나선다.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이렇게 시작된다.

다섯 가지 한국 사람

거부되고 해체되기 시작한 「조선 사람」을 대체할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나선 사람들은 5가지 대안을 찾는다. 첫째는 「친중위정척사파」, 둘째는 「친일개화파」, 셋째는 「친미기독교파」, 넷째는 「친소공산주의파」, 다섯째는 「인종적민족주의파」다.

「친중 위정척사파」는 500년을 이어온 조선의 주자성리학 질서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하는 19세 중엽에 형성된다. 청이 아편전쟁에서 서구열강에게 패하고 왜(倭)가 서구의 문물을 급속히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조선에서는 천주교가 확산되기 시작하자 조선의 마지막 선비들은 「위정척사」(衛正斥邪)의 이념 하에 체제 수호에 나선다.

「친일개화파」는 1870년대 말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들은 메이지유신(1868) 이후 눈부시게 발전하는 일본을 모델로 삼는다. 조선이 전통적으로 「왜」라고 부르면서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을 초토화시켰던 일본이었지만 친일개화파에게는 새로운 문명의 기준이었다.

「친미 기독교파」는 국권을 되찾고 융성하는 근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조선사람들이 기독교, 혹은 개신교라 일컫는 미국의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여 새롭게 태어나는 동시에 개신교가 윤리적, 제도적 기초를 제공한 민주공화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17년 볼셰비키혁명을 통해 역사에 혜성처럼 등장한 소련은 서구열강들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전대미문의 살생과 파괴를 거듭하면서 자멸해가던 제1차세계대전 와중에 탄생한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에게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를 주창하는 소련의 공산주의 이론은 안성맞춤이었다. 더구나 소련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조직적으로 지원한다.

「인종적 민족주의파」는 조선사람을 대신할 새로운 정체성을 이념이나 종교, 예법이나 사상에서 찾지 않고 「피」를 공유하는 「인종」과 「민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찾는다. 나라를 빼앗기고 신분과 계급이 서로 다르고, 상이한 이념과 사상, 문화와 종교를 갖고 있고, 지리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피」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조선민족」, 「한민족」, 「한겨레」는 이렇게 태어난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 다섯 가지 대안은 한반도에 모여든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이 새 나라의 체제와 정체성을 제공할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 해방정국의 한반도는 전세계 그 어느 지역 못지않게 다양한 이념과 체제, 열강이 충돌하는 지역이 된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에 개입할 수 밖에 없던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마저 얹히면서 되찾은 나라는 갈라지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한민족'은 남북으로, 좌우로 동서로, 갈라진다.

포용적인 제도의 도입

전통 사상과 체제를 부정하고 다양한 외래 사상과 체제를 도입하면서 극도의 이념적 갈등과 분열을 경험 해 온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번영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조선 사람을 대체할 한국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 아제모글루(Daron Acemoglu)와 로빈슨(James Robinson)이 말하는 '포용적인 제도'(inclusive institutions)들이 도입되고 확산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¹

19세기 말부터 일본의 개화사상, 미국의 기독교 사상 등이 전파되고, 20세기 초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이 전파되면서 조선의 신분제, 남존여비 사상, 지역차별주의는 철저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조선의 차별적이고 '약탈적인 제도(extractive institutions)'들은 이념적이고 이론적인 비판으로만 무너진 것이 아니다.

강화도조약(1876)으로 부산, 인천, 원산이 개항하면서 조선은 구미 열강들이 중국과 일본에 강요한 '개항장 조약 체제(open treaty-port system)'에 뒤늦게 편입된다. 이 과정에서 조선 사람들은 '조약', '만국공법(국제법)', '해관', '관세'가 무엇인지 배워야 했고 외국의 문물을 배우고 외국인들과 협상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구사해야 했고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제도와 정책을 이해하고 고안하고 집행해야 했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은 문반 사대부들이 아닌 '율관', '산관', '역관' 등 차별받던 '중인'들, 무반, 서얼, 서북인, 향리 등 소위 '제2신분계층(secondary status group)'들이었다.² 이들은 일본에 건너가 일본말과 근대일본을 배우고 선교사들로부터 영어를 배우고 개신교로 개종하면서 조선의 근대화를 견인한다.

일제시대는 비록 조선 사람이 일본의 황국신민이 된 시대였지만 조선체제 하에서 차별받

¹ Daron Acemoglu and James Robinson,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Crown Currency, 2012.)

² Kyung Moon Hwang, *Beyond Birth: Social Status in the Emergence of Modern Kore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p. 33.

고 억압받던 여성들과 '제2신분계층'이 본격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에 투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시대다. '한민족'에게는 억압의 시대였지만 나혜석, 최승희, 노천명 등 수 많은 조선 여성들에게, 조선 총독부에서 관료로, 간부로 활동한 수많은 서열, 중인, 향리 출신 인사들에게, 일제가 설립한 국민학교, 중학교에서 근대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조선의 평민, 천민 등에게, 일본 유학의 기회를 얻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조선에서는 천대받았지만 사업을 일으키고 부를 일굴 수 있었던 상인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일제에 저항하면서 교회, 신학대학, 학교, 유치원, YMCA등의 '해방공간'을 유지하고자 한 개신교도들에게 일제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기회의 시대, 포용의 시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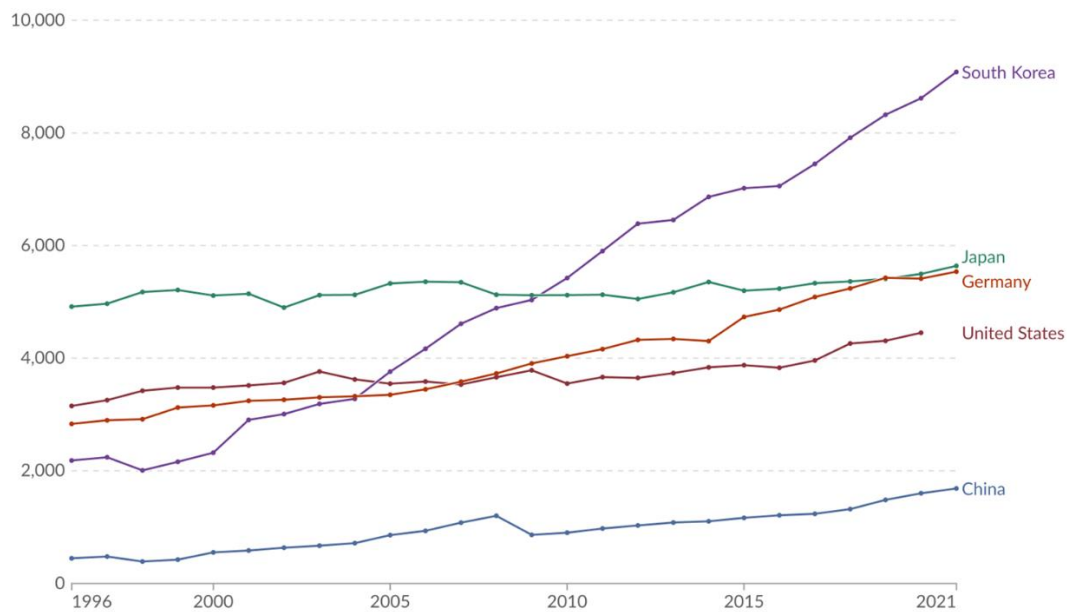
일제가 군국주의로 전락하면서 조선이 다시 약탈적인 체제로 변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의 개입으로 조선은 해방을 맞으면서 포용적인 체제로 다시 전환한다. 조선의 백성들 모두가 독립국의 '국민'이 되고 조선의 성인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투표권을 갖게되면서 참정권을 획득한다. 비록 독재와 쿠데타로 얼룩진 역사였지만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반독재 투쟁,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으로 대한민국은 보다 포용적인 사회로의 발전을 멈추지 않는다. 아제모글루와 로빈슨이 지적하듯이 반정부 투쟁을 벌일 수 있고 그 투쟁이 결국은 정부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포용적인 체제의 전형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포용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경제다. 한국경제 발전을 견인한 대기업들의 창업주 중 전통적인 문반 사대부 출신이나 그 후예는 없다. 절대다수는 평민이나 '제2신분계층' 출신들이다. 한국의 경제는 군사독재 하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기업인들에게 '창조적 파괴'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50년간 30대 재벌의 명멸사가 이를 증명한다. 최근 한국경제가 역동성을 상실해가는 이유는 끊임없는 창조적 파괴를 가능케 했던 포용적인 체제가 바로 그체제의 최대 수혜자인 재벌들의 시장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새로운 기업들의 시장진입을 점차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Number of R&D researchers per million people

Our World
in Data

Professionals engaged in conceiving or creating new knowledge, products, processes, methods, or sys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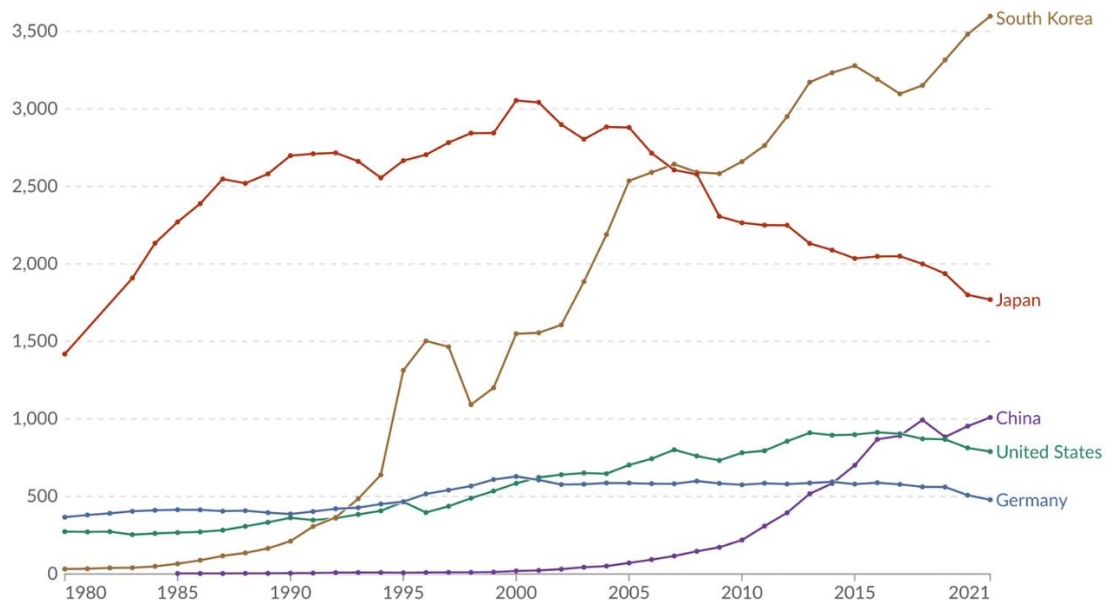
Data source: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25)

OurWorldinData.org/research-and-development | CC BY

Note: Postgraduate students are included.

Annual patent applications per million people

Our World
in Data



Data sourc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via World Bank) (2025);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Eurostat, and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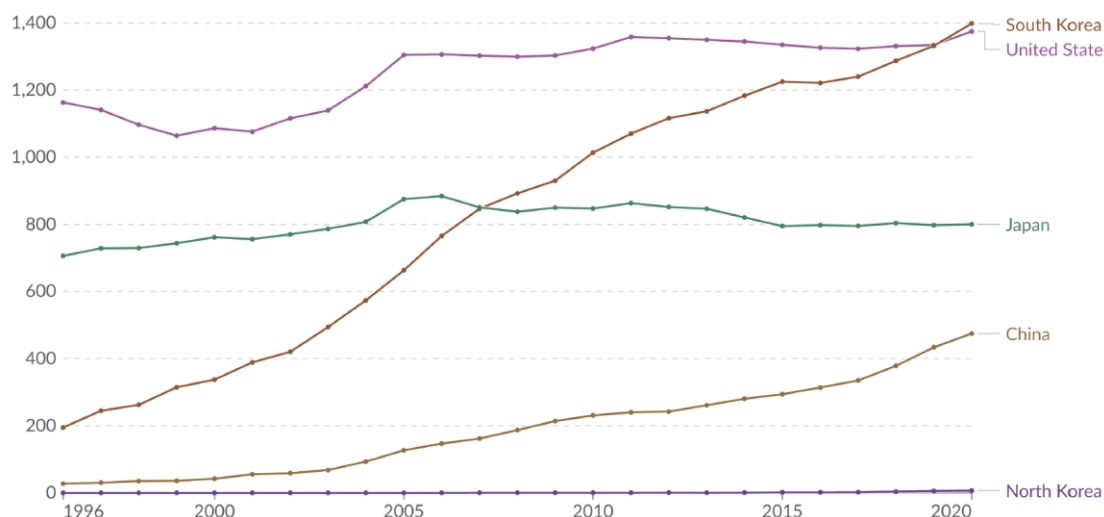
Note: Patents are assigned based on the residence country of the first-named applicant.

OurWorldinData.org/research-and-development | CC BY

Annual articles published in scientific and technical journals per million people, 1996 to 2020

Our World
in Data

Includes physics, biology, chemistry, mathematics, clinical medicine, biomedical research, engineering and technology, and earth and space sciences.



Data sourc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via World Bank) (2025);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Eurostat, and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2025)

Note: Articles are assigned based on the country of the first author's institution.

OurWorldinData.org/research-and-development | CC BY

Value of exported goods as a share of GDP

Our World
in Data

Total value of merchandise exports divided by gross domestic product, expressed as a percentage.



Data source: Fouquin and Hugot (CEPII 2016)

OurWorldinData.org/trade-and-globalization | CC BY

대한민국 변영의 비밀

구한말에서 일제시대와 해방공간을 거쳐 대한민국 건국에 이르는 역사는 조선체제와 이념을 대체할 새로운 체제와 이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대한민국은 조선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건설한 나라다.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혁명, 볼셰비키혁명 못지 않게, 아니 어쩌면 더 '혁명적'으로 과거와 전통, 역사를 부정하고 새로 만들어진 나라다. 물론 국토가 분단되고 이념적 갈등이 심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선을 대체할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면서 한국은 조선에 비할 바 없이 '포용적(inclusive)'인 사회로 변한다.

조선의 근대화 과정, 일제시대와 해방정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출범은 모두 보다 많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을 끊임없이 제공한다. 조선조 말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의 3-5%에 불과한 문반 사대부들에 의해서 참정권이나 사유재산권은 물론 인격마저 말살 당하던 여성, 무반, 서얼, 중인, 서북인, 향리, 평민, 천민 등의 사회구성원들은 점차 국가의 정치에, 경제에, 사회에, 문화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기회를 확보한다. 한국 근현대사의 시대정신은 '포용'이다. 대한민국의 변영하고 있는 이유다.